



광명시의회 소식

제260회 신축년 첫 임시회 개최

광명시의회는 2월 18일 제260회 임시회를 개최해 3월 4일까지 15일간 의정활동을 펼친다.

이번 임시회에서는 광명시 각 부서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, 의원 발의 조례

안 9건을 포함한 총 25건의 안건이 상정됐다.

시의회 관계자는 “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안타깝다. 시의회는 여섯 차례에 걸친 추경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



통해 코로나 극복에 최선을 다해왔다. 올해도 일상을 회복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”고 말했다.

광명시의회 ☎ 02-2680-2527



노인재능나눔활동 참여자 모집

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는 노인재능나눔활동 참여자 80명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.

만 60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다. 선정되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월 4회 자살우울 예방상담과 학습지도 활동을 하게 된다.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,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,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장기요양보험등급 등 판정자, 2020년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자 등은 사업 참여에서 제외된다.

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에 직접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.

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☎ 02-894-7770



도시농부학교 수강생 모집

광명시는 농업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통해 익히는 도시농부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. 광명시민 35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. 교육기간은 3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.

교육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광명텃밭보급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.

신청기간 선발 완료 시까지

수 강 료 15만 원(교육 대상자는 공동텃밭 제공, 1년 경작 가능)

광명텃밭보급사업소 ☎ 070-8887-9114

선거운동의 자유 확대



말(言)·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

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해 **송·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**을 할 수 있습니다.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**말로 선거운동**을 할 수 있습니다.

명함 교부 선거운동 규제 완화

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**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**을 할 수 있습니다.

지방자치단체장 재·보궐선거 실시 횟수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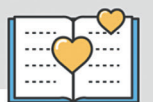


지방자치단체장 재·보궐선거를 **연 2회** 실시합니다.

4월 } 첫 번째 수요일
10월

※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재·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(4월 첫 번째 수요일) 실시합니다.

장애인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



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·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 **자막방송** 또는 **한국수어통역**을 의무로 해야 합니다.

후보자가 **점자형 선거공보**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**두 배** 이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**‘음성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’**로 전환해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합니다.

‘광명소식’ 무료 구독 및 의견 청취 안내

‘광명소식’은 광명시가 시민에게 시정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월 둘째, 넷째 주 수요일에 발행합니다.

우편구독을 원하거나 기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광명시청 홍보담당관(02-2680-2062)이나 이메일(gmgongbo@korea.kr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‘광명소식’의 글자체와 이미지(삽화, 그림 등),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지식재산권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.



광명시 민원콜센터 ☎ 1688-3399



광명시와 관련된 **사진**을 보내주세요.

행사, 공연, 풍경, 옛 모습과 시민을 담은 사진을 설명·이름·전화번호·주소와 함께 이메일(gmgongbo@korea.kr)로 보내면 됩니다. 채택되면 **사진고료**를 지급합니다.

홍보담당관 ☎ 02-2680-2062



눈 내린 새벽 안양천 산책

함박눈이 펄펄 내린 날, 인적 드문 새하얀 길을 걷고 싶어 새벽에 안양천 산책에 나섰다. 몹시 추웠지만 마음은 포근하고 행복한 산책길이었다.

박현실(광명시 철산동) 씨